

1930년대 가족사소설의 정치적 무의식 연구*

황 국 명**

목 차

1. 들머리	4. 30년대 가족사소설의 이념적 지향 과 그 한계
2. 아버지세대의 시대의식과 현실 대응방식	5. 맺음말
3. 부자관계와 아들세대의 욕망	참고논저

1. 들머리

가족소설의 하위범주인 가족사소설은 사회사와의 관련 속에서 가족 혹은 가계의 운명을 그린 일종의 대하소설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은 사회의 축도이며 가족의 운명은 사회의 변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말해진다. 가족사소설에 관한 기존의 연구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30년대 가족사소설 연구는 개별 작품론이나 작가론¹⁾의 일부로 진행되거나 소설유형론²⁾에 비중을 두고 있다. 가족사소설에

* 이 논문은 1992년도 교육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지방대학육성) 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대하』에 대해 현길연, <단헌 시대와 역사에 대한 소설적 전망>(『세계의 문학』, 88 겨울호), 오양호, <김남천의 『대하』론>(『동서문학』, 90.5), 윤여탁, <풍속의 묘사와 역사의 서술>, 구인환 외,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삼지원, 1990), 강옥희, <김남천의 장편소설과 『대하』>(상명여대 석사논문, 1991), 양윤모, <김남천의 『대하』 연구>(고려대 석사논문, 1991), 김재남, 김남천문학론(대학

관한 이해를 넓힌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있어 논의의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가족사소설의 개념 규정과 대상 확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³⁾. 이

사, 1991), 정호웅,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그 한계>, 정호웅 외, 장편소설로 보는 새로운 민족문학사(열음사, 1993), 조남현, <『대하』 1·2부 재해석> (『소설과 사상』, 93 봄호).

『봄』에 대해 오성호, <달린 시대의 소설>, 『봄』 해설(풀빛, 1989), 서경석, <자전적 소설의 한 유형>, 정호웅 외, 같은 책, 김성수, <이기영 소설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1), 이상경, <이기영 소설의 변모과정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2), 박홍배, <이기영의 장편소설 연구>(동아대 박사논문, 1993).

『탑』에 대해 신희교, <『탑』의 인물유형>(『어문논집』 24·25 합집, 고려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85), 송호숙, <한설야 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89), 김상도, <거세된 현실과 방법의 포기>(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 43집, 1991), 서경석, <한설야 문학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92).

- 2) 이중 가족사소설이란 명칭으로 개념 규정을 시도한 이재선, 한국문학의 해석(세문사, 1981), pp.122-125, 한국현대소설사(홍성사, 1979), pp.375-388, 신상성, 한국소설사의 재인식(경운출판사, 1988), pp.71-80, 윤석달, <한국현대가족사소설의 서사유형과 인물유형 연구>(고려대 박사논문, 1991), pp.10-11, 가족사연대기소설이란 명칭으로 개념을 규정한 한승옥,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민음사, 1989), pp.129-153, 이주형, <1930년대 한국장편소설 연구>(서울대 박사논문, 1988), pp.153-175, 류중렬, <1930년대말 한국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부산대 박사논문, 1991), pp.14-15, 35-36, 황윤철, <1930년대 가족사·연대기소설 연구>(『대구어문논총』 9집, 대구어문학회, 1991), 원은영, <가족사연대기소설연구>(이화여대 석사논문, 1992), 박현호, <30년대 후반 '가족사연대기'소설의 의미와 구조>(『민족문학사연구』 4호, 1993) 등이 있다.
- 3) 조동일은 가족사 세대소설이라 하고 대결 의지를 상실한 작가의 타협적 산물로 비판한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5권(지식산업사, 1988), pp.429-433, 김동환은 『대하』 『봄』 『탑』을 풍속소설로 취급한다. 김동환, <1930년대 후기 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풍속'의 의미>(『관악어문연구』, 1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0), 최유찬의 논지는 가족사연대기소설을 우회적인 역사소설로 이해할 단서를 보인다. 최유찬, <1930년대 역사소설론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83), pp.70-72. 대상의 범위에서 특히 『삼대』 『태평천하』를 두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연대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祖父孫 삼대가 동시대에 공존하므로 '가족사' 혹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일 수 있는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유종호, <염상섭의 『삼대』>, 이재선·조동일 편, 한국현대소설작품론(문장, 1981), p.144. 김윤식, 염상섭연구(서울대출판부, 1987 재판), pp.575-576. 그러나 가족사나 가족사연대기라는 엄격한 개념 속에서 다루어진 『대하』 『탑』 『봄』도 그 개념을 충족시키는 소설은 아니다. 예를 들어 조의관의 죽음으로 세대 전환이 일어나는

는 가족사소설의 서구적인 발생 배경과 개념을 우리 소설에 일방적으로 적용한 결과이기도 하고, 연구자의 편의적인 재단의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유형론적인 접근은 지나치게 각 세대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같은 세대 내의 변별성을 간과한 면이 적지 않다. 그 결과, 혈통을 중시하는 아버세대의 가족중심주의를 민족정체성과 기계적으로 동일시하거나 그들을 일방적으로 타락한 세대로 보고, 그들과 대비된 자식세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⁴⁾.

셋째, 30년대 후반의 가족사소설은 당시 전개된 장편소설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일제의 군국파시즘이 강화되어 간 현실에 대응하여 장편소설개론이 개진되었고, 그 논의에서 김남천, 최재서 등은 가족사연대기소설 혹은 가족사소설을 이상적인 장편소설의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현실을 인식하고 상황을 타개할 가능한 서사로서 이들 양식이 얼마나 타당하고 적절한가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당시에 제안된 소설론이 작품과 어떻게 조응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가족사소설의 개념 규정도 중요하지만, 가족사소설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몫은 사회적 변동에 처한 가족구성원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며, 그 대응방식이 어떤 이념이나 가치체계와 관련되는가를 밝히는 데 있을 것

『삼대』와도 달리, 이들 작품에서 세대가 동시대에 공존하며, 『대하』의 경우에 중심적인 시간 배경이 단오를 전후한 2-3달에 불과해서 『삼대』보다 짧거나 거의 같은 시간 경과를 보인다. 정호응은 1907년에서 1910 합방직전까지의 3년을 시간 배경이라 하고 있으나, 작가에 따르면 1906년 단오 전후일 뿐이다. 정호응 같은 글, p.240, 김남천, <작중인물지>(<조광>, 40.11), p.202. 그래서 이들 작품은 본격적인 연대기에 미달하거나 가족사소설이 아니라고 판단되기도 한다. 한승욱, 같은 책, p.152, 이덕화, 김남천연구(청하, 1991), p.233.

- 4) 핏줄 혹은 가계계승을 보인 아버세대가 부정적인 면을 지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이념이나 민족동질성, 민족정체성을 회복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제가 극단화되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반사회적 반민족적인 『태평천하』의 윤직원의 친일조차 가족 곧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해석된다. 신상성, 같은 책, pp.295-296, 304-305 참조. 그런데 이런 가족중심적인 작품은 『탑』의 경우에 다소 적절하나 다른 작품에서는 그렇게 현저하지 않다.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기영의 『봄』, 김남천의 『대하』, 한설야의 『탑』을 대상으로 하여⁵⁾, 작중인물의 현실인식 및 대응양상을 통해 30년대 후반기의 가족사소설에 나타난 정치적 무의식 혹은 이념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족구성원의 현실인식과 대응방식을 통해 가족사소설의 정치적 무의식을 드러내고자 함은 가족성원이 사회의 근본단위로서 타인과 변별되는 개체이며, 또한 사회적 계급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작중인물의 드러난 행위가 전혀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의미와 행위를 표면에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것은 일정한 한계까지만 제한된다. 이와 같은 제한을 F.제임슨은 텍스트의 봉쇄전략(strategy of containment)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고는 ‘거꾸로 넘기’와 같은 ‘반전’의 과정을 통해 함축된 의미, 표현되지 않은 현실까지 읽고자 한다고 하겠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이념 비판의 성격까지 띠게 된다. 왜냐하면 이면적 의미란 작중인물, 작품, 작가의 자기부정적이거나 자기모순적인 요소이고, 그래서 그런 요소를 자각적

5) 이 세 작가를 선택함에 있어 이들이 카프의 주요 작가라는 점만이 이유가 된 것은 아니다.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는 주인공 송빈을 중심으로 한 성장소설에 속한다는 의미에서 가족사소설의 범주에 넣지 않았다. 물론 본고의 대상 작품에도 자아발견의 성장소설적 요소가 확인되며, 이는 류종렬, 같은 글, pp.54-67에서 상론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요소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내 혼을 입증하기 위해 여행한다는 루카치의 소설론처럼, 모든 소설을 성장소설로 단순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른 한편, 역사를 갖지 않은 가족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로서 家系의 통시적 이야기를 심층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삼대』 『태평천하』도 가족사소설의 범주 속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근대소설사에서 사회사와 접점에 놓인 가족의 부침하는 운명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주목한 작가는 채만식이다. 그의 이런 관심은 『태평천하』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작품과 함께 살펴야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줄고, <1930년대 가족사소설의 이데올로기 지향 연구 - 채만식의 가족서사를 중심으로> 『인제논총』 8권 2호, 1992) 참조.

6) 여기서 ‘정치적 무의식’이란 작품에 위장, 은폐되거나 억압된 내용 혹은 왜곡된 이념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해석상의 반전은 이들을 비판적으로 탈신비화하고 복원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Methuen & Co. Ltd., 1981),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여홍상·김영희 역, 창작과 비평사, 1984), L. J. Davis, *Resisting Novels: Ideology and Fiction* (Methuen & Co. Ltd., 1987) 등을 참고하였다.

이든 무의식적이든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모순이 작품에 대한 이념 비판적인 분석의 토대가 된다.

가족구성원과 가족 외적 인물과의 관련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본고는 특히 다음 몇 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아버지세대의 시대의식과 현실 대응방식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父子관계의 지배적 속성 및 父權과 아들세대의 관련을 분석하고, 아들세대의 욕망을 검토할 것이다.

셋째, 가족사소설이라는 양식의 이념적 지향과 그 한계를 검토할 것이다⁷⁾.

2. 아버지세대의 시대의식과 현실 대응방식

(1) 시대의식의 세 가지 모습

1) 봉건적 가족이기주의

『탐』⁸⁾은 일로전쟁 직후부터 일제하 대정 7년(1918)에 이르는 14-5년간의 연대기적 배경과 관북 H 읍 나군터라는 농촌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탐』은 일로전쟁에서 일제하 구주전쟁에 이르는 사회변동 속에서 박진사와 그 가족이 변화된 상황에 적응, 변모하고 부침을 겪는 과정을 보인다. 이런 점에서 다른 작품에 비해 가족사소설의 원칙에 훨씬 접근해 있다고 할 수

7) 민중의 문학적 자기표현인 민요 등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은父子만이 아닌 다양한 관계, 의식, 기능을 지닌다. 이에 대해 장관진, 한국민요에 나타난 가족의 식 연구(세종출판사, 1989) 참조. 그런데 30년대 후반기 가족사소설에서는 변동기에 놓인 가족의 운명을 명징하게 드러내기 위해父子라는 특정한 관계가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를 통해 가족사소설의 이념적 지향을 살피려는 것은 집의 <물량성>보다 가계의 <관념성>에 주목한다는 뜻이다. 이 두 개념에 대해 김정자, <강경애, '집'의 轉移的 의미>, 김정자 외, 한국문학에 있어 집 그리고 가족의 문체(다래, 1992) 참조.

8) 『탐』은 40년 8월에서 41년 2월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고 42년 단행본으로 상재되었다. 본고는 제삼한국문학 5권 『탐』(수문서관, 1988)을 텍스트로 하고 본문에 면수만 표시한다.

있다.

박진사의 집안은 자신까지 <팔대를 내리 진사가 나고 그동안 급제가 셋>이나 배출된(35) 지방의 명문거족이다. 누대에 걸쳐 벼슬을 하며 세력을 누려온 박진사는 가문의 명예, 조상의 이름에 집착하고 이곳 나군터를 <은혜로운 락토(樂土)>(76)로 여긴다. 그러나 봉건지배층과 결탁하여 백성을 수탈하거나 후보초시로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박진사의 가계는 조선 후기의 타락한 권력에 기생하면서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로 박진사는 민중의 공격 대상이 되어 민요를 겪고, 홍범도 의병부대에 의해 불의에 팔린 인물로 지목되어 암살 위협을 받는다⁹⁾.

이런 위협에 직면한 박진사는 술선하여 서당을 학교로 만들고 일인 선생을 초빙하며 집 뒤의 빈터를 학교운동장으로 내어주는(216) 등 친일 개화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 일제강점기에도 지배체제와 밀월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구주대전으로 철광의 시세가 급등하자 박진사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조부가 못다 이룬 개간 사업에 착수한다. 그 땅은 80여 정보에 이르는 황무지로 조부 당시 부근 주민의 반대로 묵여 오던 것이다.

이 공사가 준공되는 날이면 그 부근 전답에 물을 끌어가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 하여 여전히 부근 촌락의 반대가 있었으나 이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이라 하여 당국에서 공사를 허가하였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보조비까지도 주겠다고 하였다. (345)

이 개간 사업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일환이다. 위 인용으로 미루어 황

9) 이들은 전국적인 의병봉기에 자극되어 일어난 민중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박진사가 민중의학을 창시한 이제마의 제자로 되어 있어 흥미롭다. 서자출신으로 적서 차별을 겪은 이제마는 유가의 고루한 도덕과 체면을 무시하였고, 민씨세도정치에 크게 반발하여 일본과 개화당 정부에 대항한 의병 최문환을 체포함으로써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는 봉건사회의 차별적 질서를 비판한 인물로 사상적으로는 개화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상의식이 투철한 <골양반>(353)인 박진사가 이제마의 제자라는 것은 『탐』의 주제를 흐리는 것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 세상의 변화를 읽는 박진사의 기민한 안목을 드러낸다. 이이화, 한국 근대인물의 해명(학민사, 1985), pp.168-170 참조.

무지는 민간 소유 미개간지로 보인다. 일제는 이런 민유미간지에 대해 관인을 얻을 경우 그 소유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개간사업은 이는 일제의 토지수탈, 쌀수출 등과 물려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작농의 개간권을 박탈하게 되고, 일제와 조선인 지주의 구조적 결탁을 가능하게 했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당국의 허가를 호의적으로 말하고 부근 촌락의 반대를 수리문제로 취급한다든지, 마을의 화재를 진압하는 우연한 사건을 들어 반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농민이 처한 현실적인 위기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라 할 수 없다.

이상으로 볼 때, 박진사는 민요와 일러전쟁, 의병운동과 일제강점 등 격변하는 사회적 소용돌이를 헤쳐간 기회주의자라고 하겠다. 그래서 박진사는 능란한 특유의 사교술로 <당시의 관계(官界)와 민간에 모다 출반좌>(88)하며 그런 결과로 도교수, 군수, 농상공부주사(322) 등을 지내기도 한다. 또 이기적인 현실주의자답게 그는 점차 세력을 떨치는 금권의 부상을 주목하고 신흥자본가 송병교와 연대한다. 박진사는 송병교에게 토반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그의 근본을 양반으로 올려주고, 집안의 가업이라 할 개간사업을 위해 자금을 융통한다. 그러나 여전히 개화에 냉담하고 반상을 차별하는 골양반(353)임을 강조하고 있어, 그가 전통적인 지배이념이나 권위¹¹⁾를 근본에서 회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자신의 모든 행위가 조상의 이름을 빛내기 위한 것이라 할 때(347), 박진사에게 군(君), 공(公), 국가, 민족 등의 관념이 결여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렇다면 그는 봉건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가족이기주의의 극단을 보인다고 하겠다.

2) 이율배반적 봉건의식과 불구적 개화의식

『봄』¹²⁾은 방깨울이라는 농촌을 배경으로 하면서 무반가의 양반이요 무과

10) 이는 신용하, <일제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과 농민의 경작권·개간권·도지권·임회권>, 조선토지조사사업연구(한국연구원, 1979)에 상술되어 있다.

11) 배버에 의하면, 권위(지배)의 유형은 옛 제도의 규범이나 전통적인 관습에 근거한 전통적 권위, 예외적 재능을 지닌 지도자에 대한 헌신에 근거한 카리스마적 권위, 합리적인 규칙과 법적 계약에 근거하는 합리적 권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칼 뢰벤슈타인, 현대적 관점에서 본 막스베버의 정치사상(정문길 역, 삼영사, 1980), pp.105-127.

급제자인 유춘화(선달)와 그의 일가가 1900년을 전후한 3년간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경제적으로 파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선달의 주된 활동은 귀향 후 약 3년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의 의식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매가인 안찰령댁의 마음으로 방개울로 이사온 후의 행적도 주의 깊게 살펴져야 한다.

<민촌(民村)으로 유명>한 방개울에 유선달이 권세있는 집안의 양반 마음으로 오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양반의 절제>(17)에 대한 위협과 불안움을 느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유선달을 시험하고자 한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송첨지와 유선달의 대결이다. 사건은 유선달집의 머슴이 조의정의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산지기 송첨지에게 낫을 빼앗긴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이 두 집의 대결은 마을 사람들에게 <실로 반상간의 결전>(22)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드러난 싸움 이면에는 또 하나의 싸움, 즉 양반 사이의 대결이 감추어져 있다. 유선달이 <상전의 세도>를 믿는 송첨지의 <거만한 태도>(21)를 추궁할 때, 그는 송첨지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바로 그 상전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시굴 토반쯤은 우습게 알고> 있는 세도재상 조의정집이 원주민의 동유립이었던 산을 차지하게 된 내력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그때쯤은 서슬이 푸른 양반이면 어느산이고 제산이라고 손을내밀면되었
다. 같은 양반끼리라도 세력의 강약(強弱)으로 뺏기고 뺏는수가 있는터이
니, 상놈이라면 더할말이 없다. (280)

권력의 사유화, 과거제의 타락이 극에 달한 조선 후기에 편법을 동원한 권세가의 이런 득탈은 흔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같은 양반도 권세의 차이에 따라 투쟁에서 패배하고 몰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¹³⁾. 남북명사를 지

12) 『봄』은 40년 『동아일보』 및 『인문평론』에 연재되었다. 본고는 대학사에서 영인한 한국근대장편소설대계 12권 『봄』(1988)을 텍스트로 하고 본문에 면수만 표시한다.

13) 권문벌열의 족벌세도 정치로 인해 양반엘리트 사이의 권력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양반 관료의 충원은 당색과 문벌에 의해 침해되고, 경쟁에서 패배한 양

낸 큰댁과 근처에 일대 세력을 지닌 안참령댁과 달리, 유선달의 집안이 자고로 <칭빈하여 변화한 집안이 못>된다(37)는 진술은 이런 권력 경쟁에서 패배한 가계 상황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선친 역시 선달로 늙은 이들 가계는 타락한 과거제와 권력 투쟁에서 희생되어 정치 경제로부터 소외된 잔반일 것이다.

그렇다면 형구를 갖추어 송침지에게 私刑을 가할 때, 이는 첫째, 권력의 열세로 모욕을 겪은 궁향지사의 반발일 수 있다. 즉 송침지에게 <늬댁상전만 양반이구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고 추궁할 때, 이는 암묵적으로 경쟁 혹은 투쟁하는 권세가에 대한 비난일 것이다. 그는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유가적인 의미의 양반 신분¹⁴⁾을 말한 것이다. 둘째, 신분제의 약화를 틈타 송침지처럼 재산을 모은 천민이나 상민이 양반처럼 행세하는 현실에 특히 몰락 양반의 처지로서는 불만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송침지에 대한 유선달의 私刑은 이들의 상향적 신분이동이라는 사회역사적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⁵⁾. 유선달은 권세가 안참령집의 대리인으로서 이곳 주민을 전통적인 신분질서에 순응하도록 길들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근거로 미루어, 유선달은 전통적 권위, 즉 옛 제도의 존엄성에 이율배반적으로 의존한다고 하겠다.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 타락한 권력 구조에 반발하면서도 유선달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이미 결정된 마땅한 존경과 복종의 의무를 요구하고, 신평서라는 권문세가에 기대어 관료로 충원되기를 바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불건질서에 대한 이율배반적 입장 때문에 유선달은 동학농민전쟁의 의의

반은 정치 경제로부터 멀어져 거의 상민의 처지로까지 몰락하면서 전통적인 신분질서가 크게 동요하였다. 진덕규 외, 19세기 한국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 식(고대민족문화연구소출판부, 1982), pp.30-31 참조.

- 14) 예를 들어 송사 처리도 권세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 양반의 도리를 따라야 한다는 반발이 있었다. 박병호,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서울대출판부, 1985, 3쇄), pp.114-115 참조.
- 15) 방계울 농민의 양반 배송의 전통은 이 지역의 전통적인 신분제의 현저한 해체, 부정을 나타낸다. 작품 배경인 충남 연기군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전통적인 신분제가 최종적으로 부정된다고 한다. 이영훈, <광무양전에 있어 <時主> 파악의 실상>, 김홍식 외, 『대한 제국기의 토지제도』(민음사, 1990), pp.95-96.

를 고의적으로 축소한다.

갑오 을미년의 동학난리를 겪은 유선달은 시세가 날로 갈라감을 통탄했다. 그는 서울에서 여러활랑들과 장안이 좁다고 활개짓을하며 놀던것도 인제는 지나간 시절의 한마당 꿈으로 흘러갔다. 유춘화는 동학난중에 그고을 **가 무참히도 *을 잘려 죽는꼴을 보았었다. (…중략…) 만일 그통에 유선달집도 상인들에게 인심을 잃고 토호질을 하는 양반이었다면 화를 입었을 것이 명약관화였다. (…중략…) 유선달이 동학난을 치르고 서울로 올라가기는 그해 가을이었다. 개화의 풍조가 나날이 치미는대로 그의 심경에도 변동이 안생길수 없었다.(36-38)

여기서 주의해 볼 점은 동학을 통해 유선달이 무엇을 경험하느냐는 점이다¹⁶⁾. 그가 농민전쟁에서 내심으로 날카롭게 의식한 것은 그 전쟁의 反봉건성일 것이다. 한 고을의 수령이 목이 잘려 죽는 광경을 목도한 그에게 전통적인 신분질서에 치명타를 가한 이 반봉건성은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의 호기롭던 옛 생활도 이제 흘러간 꿈이라며 시세를 <통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인식, 그리고 개화 풍조를 심경 변화의 중요 요인이라 한 것은 동학농민전쟁의 의의, 즉 전멸권귀, 척양척왜를 표적으로 한 반제반봉건의 변혁의지를 인정하지 않거나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¹⁷⁾. 이런 평가는 유선달이 죽벌세도 정치로 인해 권력으로부터

-
- 16) 송침지와와의 대결과 동학농민전쟁의 경험이 시기적으로 어떠한지 분명하지 않다. 『봄』에는 연대기적으로 불확실한 진술이 많아서 이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작품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민전쟁 종식 직후라고 볼 경우, 송침지와와의 싸움에서 사형을 가한 것은 농민군이 궤멸하고 난 뒤 양반 부호와 관리에 의해 가혹하게 전개되었던 보복과 무관하지 않다. 유선달이 어떤 보복을 했다고보다 그와 같은 사회적 추세에 힘입어 송침지를 굴복시킬 수 있었다는 뜻이다. 농민군의 폐정개혁안이나 1894년 갑오개혁안에서 법에 의하지 않은 인신구속이나 처형을 금지하고 있음을 볼 때, 유선달이 빈농하층민의 이해를 몰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른 한편, 송침지에게 사형을 가한 것은 동학 이전이기에 가능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반상의 구별을 파탈하고 지낸다는 진술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즉 그는 동학을 겪으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신분적 강제를 가할 수 없음을 기민하게 알아차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태도에는 기회주의적 안목이 스며있다고 할 수 있다.
- 17) 유선달은 동학농민군의 주도 세력을 상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응한 상인, 어민, 농민 등 광범위한 층이 참여

밀려났지만, 그렇다고 그 체제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한편, 봉건질서에 대한 이율배반적 의존은 유선달의 개화의식을 불철저하게 만든다. 그는 신판서가 죽은 후 <철저하게 개화>할 셈으로 무관학교¹⁸⁾에 입학하고, 귀향 후에는 개화꾼으로 유명한 신참위와 함께 학교설립운동에 나서는 등 묵은 것을 부정하고 새시대를 여는 <선각자>(435)를 자처한다. 이는 그가 새로운 합리적 권위를 추구한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그는 상하 신분관계를 파탈하는 호협한 기개를 내보인다. 그러나 그가 말 그대로 상하귀천의 차별을 뛰어넘은 것은 아니다. 그는 아들 석림을 엄하게 감독하면서 상놈 아이들과 함께 놀지 못하게 하고(94,254), 귀향 이후 방개울에서 <제일 양반으로 행세>(235)한다. 또 반상을 가리지 않고 접대한다고 하나, <봉계사 적빈객>(97,539)이 양반 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처럼, 그의 호협함은 후의나 은전을 베풀어 타인을 지배하는, 비생산적인 상층계급의 신분을 확인시킨다¹⁹⁾. 따라서 하층 상민이 신분제적 구속과 예절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하였고 그 주도세력은 빈농하층민이라 말해진다. 또 『봄』에서는 동학의 교단이 있던 충청도에서 몰락양반이 가담한 점, 척사파의 의병운동도 무시되어 있다. 이현희 편, 동학사상과 동학혁명(청아출판사, 1984 재판), pp.377-385. 마연정리 외, 갑신갑오기의 근대변혁과 민족운동(청아, 1988 3판), p.325.

- 18) 1896년에 설치된 무관학교는 한달 뒤 아관파천으로 1898년에야 재설치된다. 2회졸업 시험이 1903년에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유선달이 2회로 입학(39)한 것은 1898년경일 것이다. 따라서 유선달의 귀향 시기도 이때일 것이다. 그렇다면 러일전쟁이나 1905년에 개통한 경부선을 말한 것, 무관학교 다니면서 1907-1908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의 연설을 들었다거나, 정치단체로 1907년에 창립된 대한협회 회원이었다는 것(460)은 정치집회나 결사 활동을 금지한 무관학교의 교칙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작품내의 시기와 맞지 않다. 물론 이는 단순한 연대기적 착오일 수 있으나 동시에 유선달을 진보적 개화주의자로 부각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도 하겠다. 차문섭, <구한말육군무관학교연구>, 『아세아연구』 50호(고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pp.177-187, 202-203 참조.
- 19) 유선달의 베품은 무조건적인 것으로 더 많이 소모함으로써 타인을 지배하고 고귀함, 명예, 위계상의 상위를 획득하는 비생산적 소비이다. G. Bataille, Vision of Excess(Univ. of Minnesota Press, 1985), PP.118-122 참조. 그가 학교의 재정을 후원하면서 그의 처지에 맞지 않은 거금을 약속한 것도 소비를 통해 다른 가치를 획득하는 낭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그가 그의 태도가 화폐경제에 있어 낭비자처럼 화폐만을 중시하는 기만적인 반대 표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G. 짐멜, 돈의 철학(장영배, 안준섭, 조연희 역, 한길사, 1983), pp.318-319.

아니다. 또 금전에 대한 의식적인 부정율 <남자의 본회>(544)로 여기는 것은 직업이나 자본 축적에 부정적인 유가의 인문주의적 사고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경제적 금전적 합리주의²⁰⁾에 미달하며 불철저한 근대적 사고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의 불철저성은 극단적으로 불구적인 것으로 강화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낡은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근대화 열망에도 불구하고, 신참위나 유선달은 상하층 어디에서도 사회변혁의 세력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고을에서는 그들만큼 갠사람도 드물다. 소위 양반계급은 오히려 완고한 수구사상이 뱃속에 가득차있고 상민은 비굴한 노예근성이 또한 그 대로 남아있어서 신문명의 신호를 조석으로 전하는 경부선 철도는 임의 개통되었건만 그들은 여전히 묵은 세계속에서 잠고대를 하고있었다. (457)

이들은 역사운동의 방향을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으나 그 운동을 떠받치는 힘이 무엇이지를 알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정태적 현실인식은 필연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갑신정변의 실패를 우매한 백성과 완고한 선비의 책임으로 돌리고, 일본을 본받고 배워야 할 사표(463)로 제시함으로써 아류제국주의의 침략을 허용²¹⁾하게 된다. 대다수 민중에 대한 신뢰나

20) 이에 따르면 금전적 동기가 없는 행동은 비합리적이다. 이 합리주의에 따르면 돈은 무한한 사적 동기를 매개하고 동질화 통일시키는 공적 매체이다. K. Burke, A Grammar of Motives(Univ. of California Press, 1969), PP.93-95. 유교가 금욕적인 합리주의라는 점에서 청교도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후자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된 것은 세속활동과 경제적 성공을 신앙의 증명이요 은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R. 브루베이커, 합리성의 한계(나제민 역, 법문사, 1985), pp.36-40 참조.

21) 개화사상의 기본 내용을 국내정치의 혁신이라는 반봉건성, 반침략애국사상, 부국강병이라 할 때, 이런 내용을 『봄』에서 찾기 어렵다. 마연정리 외, 같은 책, p.142 참조. 일본을 사표로 삼자는 것은 그의 개화 추구가 비서구세계에 대한 서구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팽창 논리에 의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즉 우매하고 완고한 낡은 세계를 문명화시키다는 명분으로 비서구세계를 정복 착취한 제국주의 논리에 일치하는 것이다. R. Boyne and A. Rattans i(eds.), Postmodernim and Society(Macmillan Education Ltd., 1990), p. 34.

애정이 없다면, 선각자란 양반 선비를 대신한 새시대의 지배자가 아닌가? 말하자면 그들은 새시대의 양반일 것이며 따라서 유선달의 개화 추구는 일반 대중과의 상호연대가 불가능한 한계엘리트가 새시대의 지배자로 이동하기 위한 이념적 모색일 것이다²²⁾. 따라서 그의 양반 선비에 대한 비판은 부러움에 찬 비난이기 쉽다. 위선적인 봉건의식은 그의 내면에 사상적 혁신을 부여할 수 없고, 그런 의식의 연장에 놓인 개화 추구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불구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3) 미래지향적 합리주의

『대하』²³⁾는 국권상실 전의 어느 해 단오를 전후한 2-3개월을 시간 배경으로 하면서 경제적으로 상승하는 박성권(참봉) 일가의 삶을 중심으로 한다. 조부는 아전으로 있으면서 세미를 농간하여 상당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성권의 아버지는 주색과 도박, 아편 등에 탐닉하다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고 객사하고 만다. 스무 살을 전후한 약관에 집안 살림을 맡은 박성권은 갑오년의 청일전쟁 당시 군대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은전을 사모아 큰 재산을 이룬다. 그의 치부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저돌적인 대담성, 결단력과 추진력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세대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그는 돈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날카로운 선견의명을 갖고 있다. 그는 아직 문벌이나 가문이 행세를 하는 세상인줄 알 것만,이런

22) 그가 신판서를 통해 구직운동을 한 것, 대한협회와 같은 정치단체에 가입한 것은 특정 黨인이 되어 정권의 교체, 획득을 꿈꾸었다고도 할 수 있다. 경쟁에서 탈락한 실권적 지식인들이 외래 천주교를 신봉하게 하거나 실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켰다면, 유선달은 개화사상으로 권력 장악을 이념적으로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기원, <유교적 지성의 현실인식>, 서기원 외, 한국의 지성(문예출판사, 1977 중판), p.34. 진덕규 외, 같은 책, pp. 24-27 참조. 이런 그를 자기모순을 자각하지 못한 얼치기 개화꾼이라 하고 서술자가 친일개화파의 시각에서 그를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류종렬, 같은 글, pp.73-75, 이상경, 같은 글, pp.150-151, 김성수, 같은 글, pp.133-135 참조.

23) 『대하』는 39년 인문사에서 전작장편으로 상재되었다. 본고는 제삼한국문학 9권 『대하』(수문서관, 1988)을 텍스트로 하고 본문에 그 페이지만 표시한다.

것이 자기의 돈 앞에 궤배할 날이 멀지 않아 올 것을 확신한다.(24)

문벌, 신분보다 금권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임을 예리하게 내다본 그의 치부는 냉혹한 자기단련과 치밀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진다. 즉 그의 경제활동이 매우 합리적²⁴⁾이라는 뜻이다. 그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행위는 한편으로 채무자를 사정없이 닥달하는 냉혹성을 보여준다. 그는 비록 채무자가 존장일지라도 <빚진 죄인>을 다루듯 포박한 언행으로 추궁한다(157-158). 그의 행위에서 신분이 아니라 빚이 곧 죄가 된다는 자본주의적 윤리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박성권의 경제활동은 자비나 관대함과 같은 윤리적 이념에 인도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그의 행위는 비인격적 사회관계를 이루는 합리적 권위에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박성권은 이익추구에 있어 의도적이고 분별력있는 행위를 보인다. 은전을 사모아 시세차익을 노리며, 치부를 위해서 고리대금업이라는 특정한 수단에만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장사라는 게 우리의 못 할 업이라구는 생각지 않>(130)으며, 여관이나 잡화상이 차츰 번창해 가리라는 것, <이런 걸 남보다 먼저 손쓰는 편이 결국 이긴다>고 판단하지만 직접 투자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보고, 대금으로 실권만 잡아 두는 <영리한 계획>(141)을 발휘한다. 물론 고리대는 상업 자본 이전의 전근대적 사금융이지만, 박성권의 경제행위를 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²⁵⁾. 왜냐하면 장사는 뜻밖의 가능성이 많아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저당이

24) '합리적'이란 용어는 여러 내포를 지닌다. 그것은 주먹구구식의 자의나 전횡적 감정과 달리 조직의 체계성, 절차의 정확성, 법이나 정치체도의 예측가능성, 시장 교역의 비인간적 효율성, 이익추구의 의도성 등의 의미를 지닌다. 베버는 특히 근대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생산과정, 법적 행정적 환경의 계산가능성에 둔다. 강신중, 이상률 편역, 마르크스나 베버나(홍성사, 1986 3판), pp.60-61 참조. R. 브루베이커, 같은 책, pp.12-14, 21-24 참조.

25) 박성권은 은행보다 토굴이나 벽장,문갑 등에 재산을 숨겨두고 관리한다. 일본 상인이 은행의 저리 자금을 배경으로 경제 실력을 배양하고 있음과 달리 조선 상인은 사금융의 고리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박영효는 1888년 은행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 1900년 전후의 은행이 경영 부진으로 폐점하기도 한 점을 볼 때 박성권의 행위가 전적으로 시대착오적이라 하기 어렵다. 안병태, 한국근대경제와 일본 제국주의(백산서당, 1982), pp.253, 254-257 참조.

보다 이익추구에 있어 합리적 논리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²⁶⁾.

결국 박성권은 금권에 기초하여 자수성가한 신흥자본가라고 하겠다. 그의 경제행위는 합리적인 것이지만, 『대하』는 실질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요소, 즉 <도적귀족>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 이윤추구²⁷⁾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 같지 않다. 사금융인 고리대가 농민의 채무노예화와 농토로부터의 분리를 가속화시킨²⁸⁾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박성권가의 상승과 치부 및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모두가 산골으로 강원도로 피란들을 갈때에, 이때야말로 대장부가 한 번 활약할 시기라고, 박성권은 처자를 피란 가는 친척에게 부탁하고 자기 혼자 집에 남았다. 자산, 순천, 평양, 중화, 황해도에까지 내왕하며 병대를 상대로 장사를 하였다. 농토에서 떠난 대담한 많은 농군들이 이때에 군수품 운반에 종사하였는데, 대부분 그 보수를 은전으로 받았다.(15)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박성권이 위험한 전쟁터를 왕래하는 등 <쇠운에 처하여 돈을 잡노라 가즌 모험을 다 칠어>(20)내었다는 점, <소시에 벌서 크고 적은 모든 일에 스스로 단련을 치>(129)루었다는 점이다. 이로 볼 때, 박성권의 재물은 귀속신분과 무관하게 역사적 배경 속에 놓인다는 것, 따라서 그 재물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하』

26) 단오날 대운동회에 한몫 볼 욕심으로 박성권에게 돈을 빌려 여관을 차린 박리균에 대해 <운동회가 끝난 뒤에도 손님이 잇대여 꿩을 날이 없울런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을 것>(247)이라 하고, 운동회의 변화합이 사라진 뒤의 황량한 거리를 보여주고(260) 있음을 볼 때, 박성권이 치부과정에서 현실의 추이에 대해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함을 입증한다. 따라서 고리대금업에 머물고 있어 초기 상업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거나 역동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정호웅과 필자는 견해를 달리 한다. 정호웅, 같은 글, p.242.

27) 법적 규제나 통제 없이 냉혈하고 사기적인 거래, 정직성보다 현명함을 문제삼는 다양한 치부수단, 자수성가의 기회로 삼는 이윤추구의 논리 등을 도적귀족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E. J. 홉스봄, 자본의 시대(정도영 역, 한길사, 1983), pp.219-222.

28) 고리대는 동학발생의 요인이다. 또 치부한 부호들은 지방관리의 가렴주구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빈농하층민 농민군의 공격대상이기도 했다. 이현희 편, 같은 책, p.45. 마연정리 외, 같은 책, pp.129-131, 277-278 참조.

는 자기단련과 모험을 감내하는 박성권의 치부과정을 통해 재산이 더 이상 무차별적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역사과정을 통해 특수하게 획득된 것이라는 의미로 그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새로운 승리자를 『대하』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는 때때로 뒤결에 나가 십이봉(十二峰) 밑으로 유유히 흘러 대동강을 이루는 비류강(沸流江)의 강물을 만족하니 바라보았다. - 이십년 가까운 동안 저 강물은 나와 함께 노력과 공포와 기쁨을 일시에 휩쓸어 삼키면서, 몇천 년 한달처럼 대동강으로, 황해 바다로 흘러 가는, 그의 거름을 멈춘 적이 없었다. (26)

여기서 비류강은 옛 것을 압도하는 부르주아의 활력을 상징한다. 강은 농경문화의 반복성과 달리 끝없는 변화를 암시한다. 그래서 신흥자본가답게 박성권의 의식은 과거 퇴행적인 것이 아니다. 바다로 흘러 가는 강물처럼, 그는 역사적 시간이 아니라 삶의 질적 변화와 미래로 열린 사회적 시간을 의식한다²⁹⁾. 그런 만큼 그는 전통사회의 정체성을 전복하는 어떤 변화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2) 문제상황과 대응방식

1) 과거로의 퇴행

변동기에 『탑』의 박진사가 직면하는 문제는 자주적인 민족국가도 근대화도 아니다. 가족중심적인 그의 봉건의식 속에서 이들은 삶의 과제³⁰⁾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의 문제는 <이제는 돈이라야 한다>(347)는 데 있다. 이점에

29) 강은 『대하』의 중요 상징으로 보인다. 상징적인 차원에서 물은 존재의 끊임없는 변모, 결합과 동화, 여행 등의 이미지를 지닌다. 또 질적으로 다른 삶으로의 이행이나 자기정화, 세대와 시간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스통 바슐라르, 물과 꿈(이가람 역, 문예출판사, 1980), pp.13, 110, 134 참조. 아지자 외, 문학의 상징, 주제사전(상)(장영수 역, 중앙일보사, 1986), pp.119-121 참조.

30) 국가회복 곧 민족혼의 회복과 근대화 즉 가치중립적인 제도적 장치(자본주의)의 추구는 식민지하 민족주의자의 당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론(한샘, 1988), pp.14-32 참조.

서 그는 <돈벌기에 전력>해 온 신흥부르조아 송병교와 크게 다르지 않고, 여기에 구지배계급과 신흥자본가 사이의 결탁 혹은 동맹 가능성이 나타난다.

일찍부터 박진사와 교유한 송병교는 <헛돈질을 할 눈 무딘 사람이 아니>다. 그가 그가 박진사의 청탁을 들어주는 것은 그의 아들과 박진사의 딸 이순이의 혼사 때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흥부르조아인 송병교는 명문양반가와 교유, 결합함으로써 봉건권력의 예측불가능한 자의성과 타협하고 자신의 부에 안전판을 얻고자 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³¹⁾. 그러니까 그는 소유재산의 증식과 안정화를 위해 전통사회의 신분과 권위를 기대한 것이다.

다른 한편, 박진사의 의도는 자본가를 끌어넣어 물질적인 힘의 증대와 사회적 입지의 강화를 노린 경제적 이유에 있다. 그런데 돈벌기에 혈안이 된 송병교와 달리, 박진사는 세도 부리는 일이나 과거 보는 일에 <돈을 진탕 퍼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 돈이 갖는 의미 또한 송병교와 다르다.

박진사는 본시 생각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 주라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무슨 사회사업에 쓰려는 것도 아니다. 그는 단지 조상의 이름을 그 조상의 후손에게 빛나게 할 일에 돈을 쓰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그 조상에게서 뼈더 나온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고 벼슬을 주고 공부할 식히는 것이 으뜸이라고 생각하였다. (347)

<이제는 돈>이라고 하면서도 박진사는 돈을 궁극 목적이 아니라 조상의 명예를 빛내는 일에 쓰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돈은 유용성을 창출하는 생산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돈 욕망도 금전적 합리주의에 미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박진사와 송병교가 출신 성분과 경제적 목적을 달리 하는 만큼, 그 연대는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봉건적 명문가와 신흥자본가는

31) 조선후기에 들면서 신분제가 동요함에 따라 부유상민층과 빈한 양반층 사이의 통혼이 두드러진다. 전자에게는 신분적 상향이라는 정치적 동기가, 후자에게는 빈곤이라는 경제적 이유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석중,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84 중판), pp.273-278 참조.

서로 타협하고 동맹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가치상의 대립이나 이해관계의 갈등 요소를 지닌다. 양자의 대립은 박진사가 이순이의 혼인을 결정하는 쪽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12장의 「승패」라는 표제가 암시하듯, 이들의 갈등은 전통적 양반가의 패배와 신흥자본가의 승리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탑』에서 박진사의 패배는 현실 대응에 있어 다음 두 가지에 원인을 둔다. 첫째, 박진사의 빈약한 상황 판단이다. 그는 이원철광의 시세 급등이 구주대전 때문인 줄 모르고 운이나 재수의 탓(342)으로 여긴다. 그래서 개간사업까지 시도하여 송병교에게 소요 자금을 융통한다. 그러나 『탑』은 개간사업이 박진사의 철실인 평양댁의 말처럼 <미덥성 없는 사업>(373), 즉 합리적인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는 투기사업에 가깝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운수의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투기사업으로서는 재물을 안정시킬 수 없다³²⁾. 따라서 광산 시세나 여름 장마 등을 예측하지 못한 불합리한 판단의 결과, 박진사의 파탄은 피할 수 없다.

둘째, 금권이 지배하는 시대 변화 및 자본의 논리를 철저히 인식하지 못하고 낡은 시대의 봉건적 신분제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송병교의 혼사 제안에 대해 박진사는 굴욕을 느끼며 <돈은 돈이오 사람은 사람>(357)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면 다 같은 줄 아느냐>(362)고 경멸을 보인다. 이는 자신과 송병교의 관계를 양반과 상놈의 신분적 관계로 인식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신분질서와 이데올로기의 잔존적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박진사의 현실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박진사는 불합리한 상황판단, 자본의 논리에 대한 인식의 미숙함으로 인해 몰락한다. 이 실패를 승인할 수 없는 그는 옛것을 압도하는 부르주아의 활력을 <상것의 근성>(353)으로 경멸하면서 과거로 퇴행하는 의식의 지체를 드러낸다.

만일 내가 그만한 주변을 얹해 주었으면 그 드센 멧동네 관찰이나 본관

32) 절제된 소비를 합리주의에의 한 반응이라 한다면, 확실성이 부재하는 도박은 합리성에 대한 자기비판의 요구로도 이해된다. 그러나 『탑』에서 이런 비판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G. Bataille, 같은 책, pp.120,125, M.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Univ. of Minnesota Press, 1984), pp.171-172 참조.

에게 그 돈을 모조리 바쳤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잡아 가두고 달고 치면 없는 죄라도 아니불고 백일수가 어디 있으며 그 죄를 돈으로 새기자면 돈이 한강수인들 아니 탕진되리라는 법이 어디있는가. 그러면 오늘날 제놈이 부자될배 어디 있으며 은행 뒤희될 배어디 있으랴. (357)

박진사의 발언은 권력관계가 사적 성격을 띤 전근대의 미분화된 법 질서에 근거한 것으로, 권력의 이런 사유화는 경제적 합리화에 상당한 장애³³⁾가 되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런 사회에서는 벼슬이 없는 것이 꿈 <죄>일 터이고, 송병교가 박진사에게 접근한 연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박진사는 시대 변화에 무지하고 낡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동키호테에 가깝다.

2) 유기적 전체의 전략적 가치

봉건 질서에 이율배반적으로 의존하고 민중적 기반의 부정이라는 불구적 개화의를 지닌 유선달은 근대의 부정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문제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금광이다. 방개울에 사금광이 생기면서 모두 급격한 변화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금점은 개인의 욕망을 자극한다. 따라서 금광은 각 개인의 무한대의 발전을 약속하는 근대적 개인주의의 객관적 상관물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일확천금을 꿈꾸며 꿈의 장소로 찾아든다. 그래서 각처에서 금점파원, 연상과 덕대, 장사꾼과 노름꾼이 몰려와 <사람의 사태>가 난다.

그리하여 일개 한적하던 촌주막은 갑자기 난장판같이 복잡해서 밤낮없이 사람들이 바글거리는대로 그속에서는 노름판이 버러지고 술판이 버러지고, 짜흠판과 주정판이 버러져서 한테어올려 아우성을 쳤다.(211)

욕망을 따른 인구 이동과 인구 증가는 공간 분할을 만들어 낸다. 방개울 주민들이 금점꾼들에게 셋방을 놓는 것도 그런 예에 속한다. 이렇게 <팔도 모산지배>가 모여 뒤섞이고 공간이 분할될 때, 이전의 일상적인 정의나 질

33) 박진사의 주장은 자의적인 행정 집행이나 예측불가능한 비합리적 판결 등 정치적 합리화에 이르지 못한 상황을 나타낸다. 이때 신분적 경제외적 강제가 가능하고 따라서 부민의 자생적인 성장이나 경제합리화가 저지될 수밖에 없다. R. 브루베이커, 같은 책, pp.28-30 참조.

서에 의해 지배되지 않게 된다³⁴). 그 결과 일탈과 불법, 즉 개인의 이익 때문에 타인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개인주의의 부정적 현상이 드러난다. 그 단적인 예가 유선달의 머슴인 창길이 금점꾼과 도박을 하다 비명횡사한 사건이다. 창길의 죽음은 개인주의적 가치, <황금의 매력>(532)이 농업경제의 동질적인 삶에 가하는 위험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 위험에 대한 유선달의 대응은 어떠한가? <금점꾼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그들과는 도무지 접촉을 말게 하자는것이, 유선달이하로, 동중유치의 공논이었다.>(236) 외부인과의 접촉 금지는 방깨울에 유기적 집단적 가치를 보존 유지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은 유기적 유대감으로 공간을 분할시키는 개인주의의 천박한 탐욕과 무질서에 대응하려는 셈이다.

탐욕적 개인주의 - 근대의 부정성에 대응한 유기적 가치의 추구는 집단이 요구하는 사회적 협동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다³⁵). 그러나 유선달이 <대세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또 시대 변천을 개탄하는 것으로 미루어, 접촉 금지는 외부세력에 위협 당하는 집단적 고립처럼 보인다. 이런 보수적 고립주의는 첫째,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발전, 경제적 평등이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³⁶). 그 대처방법은 상층에 중심인물인 유선달과 이생원, 남씨

34) 이방인에게 임대하기 위해 건물을 분할하고 인구 증가와 혼잡에 따라 혈연이나 지연보다 돈에 근거한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주종간의 보호 현신관계는 소멸되고 서로를 희생물로 삼는 탐욕적 세계가 된다. R.Wilson, R.Dutton (ed.), *New Historicism and Renaissance Drama*(Longman Group UK, 1992), PP.197-199.

35) 유기적 집단은 진밀한 공존의 생활양식을 지닌다. 사회는 유기적 전체로 이해되며 보수적인 가족적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구분이 흐려지기 쉽다. 이에 대해서는 N. O'Sullivan, *The Structure of Modern Ideology*(Edward Elgar, 1989), PP.64-68 참조. 토지를 상품으로, 농업을 이윤을 극대화해야 할 산업으로 보는 자본주의는 농민, 지주와 대립할 수 있다. 전통적 지주제도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만, 무정부상태나 혁명을 방지하여 사회를 통합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E. J. 홉스봄, 같은 책, pp.303-304 참조. 이런 맥락에서 이를 농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고 유선달이 호혜적인 관계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따라서 민족의 유대감을 중시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원은영, 같은 글, pp.47-48.

36) 그렇기 때문에 금점꾼인 오도령에게 호감을 지닌 국실이 동네사람의 시선을 염려(267)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개인주의의 부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개

와 같은 양반과 그 아래 전선생과 송침지, 맨 하층에 빈농하층민이라는 위계 구조 위에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적인 방어의 유기적 전체 속에서 농민들은 자신이 착취 희생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낼 수 없다. 말을 바꾸면, 유선달의 집단적 방어 전략은 착취 희생되고 있다는 농민들의 느낌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응은 유선달이 전근대적 토지소유제에서 비생산적 중간착취자인 마름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³⁷⁾. 그의 삶은 농업경제의 반복적인 생산주기에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근대의 부정성에 대한 유선달의 대응은 그가 송침지에게 私刑을 가할 때처럼, 그를 전통적인 신분제하의 지배계급의 믿음직한 대리인으로 만든다. 방개울의 유기적 구조가 깨어진다면, 농민-마름-부재지주라는 경제적 고리도 파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촉 금지는 자기 마을을 매개로 한 국지적 아이덴티티를 강화하는 것이지 마을 차원을 뛰어넘은 국민적 결합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고립에 의한 유기적 가치의 유지는 개인주의의 가치 앞에 무기력하게 패배한다. 금광 투기로 빛에 몰려 모친, 동생, 자식들은 안찰령집 근처로 이사하고 유선달은 혼자 방개울의 좁은 집에 남게 되는 가족의 해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3) 시장에서의 탐욕적 경쟁

『탑』의 박진사가 성장하는 민중세력 및 신흥자본에 의해 이중으로 위협을 받고, 『봄』의 유선달이 개인주의의 가치에 패배하는 것과 달리, 『대하』의 박

인을 고정된 장소에 고착시키고 그것을 위반할 때 징벌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봄』에서 추구된 유기적 집단은 내부의 긴장과 해결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계서론적 질서이론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기론의 다양한 이론 영역에 대해 구모룡, <한국 근대 문학유기론의 담론분석적 연구>(부산대 박사논문, 1992)

- 37) 유선달의 부분건성, 개화추구를 마름이기 때문에 변하는 세계에 신속하게 적응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서경석, 같은 글, p.290. 그러나 마름이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부재지주와 토지를 상실한 다수의 소작농이라는 전근대적 토지소유 위에 존재한다면, 오히려 농업경제에 기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의 변화에 부정적일 수 있다. 마름에 대해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1(일조각, 1970)에 상술되어 있다.

성권에게 이런 외적 위협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그는 20여년간 모든 일에 채방을 놓는 박리균 형제를 <꿰어엿을려고 별러 오든 참>(142)이다. 그러면 박리균 형제와 박성권 사이의 갈등의 요체는 무엇인가?

박리균 형제의 선조 중에는 죽은 남편을 따라 자결한 열녀가 있는데, 이를 두고 이들 형제는 <비록 마방이나 국숫집으로 살아가고 땅쪼각 손퍽만한 거 하나 없다고 하야도, 저는 양반이노라 제겼다.>(13)

“박성권이 같은 놈이 합체 된가. 밀양박가로나 해서 남의 체면만 망쳐 놓지만, 그놈이 어데메 돌박간지 누구 알 놈이 있단말야. 어데서 도라먹든 놈이 도덕질이나 해서 돈푼이나 잡아가지굴랑, 내가 밀양박감네하지만.....” 박리균은 국수 먹으러 온 사람을 부잡고 곧잘 이런 꾸밈을하였다. (14)

사회적 신분으로 본다면, 이들 두 집안은 동일하다. 아전은 준관료적 하급 지배신분(중인)³⁸⁾으로, 그 후손인 이들이 신분의 우열을 두고 갈등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서 5대째 산다는 지역적 토착성에도 불구하고, 박리균 형제는 손바닥만한 땅도 소유하지 않은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토지와와의 유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데서 도라먹든 놈>이라는 박리균의 말처럼, 이는 박성권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여러 곳을 유랑했을 뿐만 아니라 고리대를 가업으로 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경외심이나 애착심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의 토지 구입은 이윤창출을 위한 자본의 투자 대상, 화폐로 환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³⁹⁾. 그래서 이들은 삶의 경제적 기반을 장터에 두고 있다. 장터야말로 각성들이 모여 혈연적 응집성이 결여된 곳이며, 각처에서 군중이 모이는 공간 장벽의 붕괴 혹은 공간

38) 안병태, 같은 책, p.165. 그러나 아전 등 서리의 신분 분류는 다양하다. 양반에 귀속되거나 상민으로 간주되며 때때로 중인의 독립된 신분으로 규정된다. 근대사연구회 편, 한국중세사회 해체기의 계문제(하)(한울, 1987), p.348. 박리균 형제가 스스로를 양반이라 자부하는 것은 품계를 획득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가적 가치를 빌어 신분을 모친한 것이라 하겠다.

39) 19세기 중엽 이후 토지의 담보, 전당관행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토지의 상품화 가치화는 토지소유의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고 화폐의 유통과 위력을 입증하는 자본제의 맹아요 근대화의 조건이다. 박병호, 같은 책, pp.12-13. G. 집멜, 같은 책, pp.308-309.

분할을 가져와 옛것에 대한 존경심이나 국지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다. 그래서 김이방 집이 문명 개화의 표상인 교회 건물로 개조되고 또 더 많은 사람의 수용을 위해 <방을 고치고 늘>(175)이는 것처럼, 박리균도 <방을 많이 갈라서> 신식 여관을 차린다(247). 또 장터는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들 신상품은 돈만 있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신분으로 자기정체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없게 하고 오히려 그런 위계를 전도시킬 수 있다⁴⁰⁾.

그렇다면 이런 장터에서의 인간관계는 지연이나 혈연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 돈을 매개로 한 계약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오를 맞는 장터사람들의 주요 관심도 <단오를 이용>(246)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비각이 전통사회의 신분제나 권력과 통한다면, 이제 그와 등가관계에 있는 것은 금권인 것이다. 혈연 신분에 의한 재산, 권력, 위세의 사회적 불평등이 경제적 계급 개념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갈등에서 신분 문제는 부차적 표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소유와 관련된 갈등이라 할 수 있다⁴¹⁾. 즉 그들의 대결은 장터, 곧 시장경제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자유롭지만 경제적으로 서로를 희생물로 삼으려는 탐욕적인 경쟁인 것이다. 박리균 형제는 이 고을에서 제일 간다는 큰 집을 사고 장터로 나선 박성권을 <그렇게 볼 놈이 아니라고 두려워>(16-17)하고, 결국은 박성권의 돈에 <완전히 굴복>하여 <비각이 밥먹여 주는 건 아니>라는 굴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집문서를 잡히고 돈을 꾸게 된다(140).

따라서 박성권이 권력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은 모든 것에 지배적 강압력을 행사하는 돈의 위력⁴²⁾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오늘이야 갓마흔에 첫버선이란 격으로 사십 평생 처음 하늘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흠족하였다. 대운동회에 기부금을 오백 양이나 하고, 씨

40) 상품은 전통적인 위계질서, 차별적 변별적인 정채, 질서로운 구조 등을 훼손 파괴시킨다. T. Eagleton, *The Ideology of the Aesthetics*(Basil Blackwell, 1990), pp.373-375 참조.

41) 오양호, 같은 글, pp.152-154. 조남현, 같은 글, pp.225-226 참조.

42) 박진사와 유선달처럼 금전 거래를 천박한 것으로 여길 때, 금권지배자 박성권은 도덕적 의혹을 받거나 범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박리균이 돈을 천박하게 여겨서 반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G. 짐멜, 같은 책, pp.313-314 참조.

름대회에도 이백 량을 한 탓인지 몰으나, 대운동회 부회장의 직함이, 그의 가슴에 커다란 붉은 꽃송이를 달게 한 것이었다. 진사, 초시도 많고, 생원, 좌수, 참봉, 이 밖에 아전의 경력을 갖인 이가 한들이 아닌데, 차함 참봉 박성권에게 부회장의 명예직이 떨어지게 된 것은, 시세가 벌써 어이된 것을 말하는 증거이기도 하나, 한편 돈의 힘을 무언중에 설명하는 좋은 재료로도 될 것이다.(251)

여기서 박성권이 전통적인 의미의 신분에 집착한다고 볼 수 없다. 그는 자신이 <참봉>이라 불리는 것에 특별히 만족하는 것이 아니며 또 옛 제도의 직위나 칭호에 강력히 유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가 부회장이라는 명예직에 평생 처음으로 만족해 하는 것은 그 직위가 돈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임을 증거하기 때문이다⁴³⁾. 이런 박성권에 대해 김남천은 비교적 우호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그는 봉건적인 전자본제에서 근대적 자본제로의 이행을 역사의 발전으로 파악⁴⁴⁾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특히 박리근네의 쓰러져 가는 비각(14)을 통해 봉건적 신분제의 허구화된 모습을 강조하는 데서 분명해진다.

3. 부자관계와 아들세대의 욕망

(1) 지배적 속성과 아들세대의 반항

1) 가계연속성과 상징적 친부살해

『탐』에서 박진사는 새로운 금권지배자에 의해 몰락과 예속의 위협을 받는다. 이런 위협에 직면한 박진사에게 <세상은 완전히 저를 버리고> 빼어져

43) 과거 신분제 아래에서는 지배하는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부유할 수 있다면, 이제 박성권의 시대는 부유하기 때문에 타인을 지배하게 된다. 이처럼 뺨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본주의이데올로기의 기본 주장이다. S. 오쏘프스키, 사회의식과 계급구조(정근식 역, 도서출판 인간, 1981), pp.30-31 참조.

44) 전자본제에서 자본제로, 봉건적 위계질서에서 적대하는 계급들의 사회로, 신분제에서 계약제로의 이행은 역사발전의 주요 유형이다. E. J. 홉스봄, 같은 책, pp.428-429.

가고 <가정>만이 남는다(366). <아버지의 자식은 있어도 어미의 자식은 없>고 <양반의 씨에는 계집이라는게 없>(370)다는 박진사 처의 탄식처럼, 박진사의 가족은 부계친의 남성중심적 가족이다. 그렇다면 父子 중심원소는 가족적 사회적 관계를 규정할 어떤 지배적 속성⁴⁵⁾을 지니는가?

박진사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강심을 먹고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하여(25), 자신의 말처럼 <내 손으로 자수성가>(408)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대사회적 역할의 모범으로 삼을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고 <부모의 명령에 복종>(409)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차남 우길(판명 상도)은 자녀의 운명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부친의 <전제적> 권위(415)에 반발하여 여동생 이순과 함께 가출한다. 이런 근거로 볼 때, 父子관계가 포괄성과 권위를 지배적 속성으로 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처럼 포괄성과 권위가 부정되지만 연속성(지속성)까지 최종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박진사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은 가족 연속성이며, 이 연속성이 父子 중심요소가 갖는 지배적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 연속성의 상징이 가묘이다⁴⁶⁾. 그래서 그는 민요를 겪고 러일전쟁 당시 피난 중에도 가묘만을 구해내고(19), 흥범도 부대를 피해 도망친 후에도 가묘 때문에 자수하며, 제사날은 목욕재계하는 등 정성을 다한다. 또 가묘 계승자, 즉

45) Hsu는 이 지배적 속성으로 연속이 유지되고 타인과 연결되도록 욕망하는 상태인 연속성, 통합하는 행동 및 통합되려는 상태인 포괄성, 복종을 명령하는 개인적 권한과 그런 권력 밑에 있으려는 상태인 권위, 성행위와 관련되지 않으려는 상태인 反성에 등을 들고 있다. P. D. Tobin, *Time and the Novel*(Princeton Univ. Press, 1978), PP.60-61 참조.

46) 이광규는 동양가족의 상속규칙과 중심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면 중국은 재산을 자식에게 균등 배분하고 재산을 상속하는 가산권에 치중하며 포괄성을 중시한다. 일본은 장남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며 재산을 관할하고 가족원을 지배하는 가독권에 치중하며 권위성을 중시한다. 한국은 위 양자의 중간형으로 장남우대불균등상속이며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권에 치중하고 연속성(지속성)을 대표적인 내용으로 한다. 이상일 외, *한국사상의 원천*(박영사, 1977 재판), PP.256-257 참조. 가족은 구성원의 짧은 생애와 달리 연속적 항구적이며 그 자체 생명을 지닌 것으로 상징적 특질을 지닌다. 가족연속성의 상징에는 가족 자체 뿐만 아니라 가업이나 토지, 숲 등 재산도 포함될 수 있다. J. Gilvert, <Symbols of Continuity and the Unity of Les Thibault>, W. M. Frohock, *Image and Theme*(Harvard Univ. Press, 1970), p.126.

제사를 집행할 제사권 계승자인 장남 수길(관명 상무)이 혼인 후 감농을 잘 해 수확을 늘려 조상 봉사하고 가용에 쓰고도 조금씩 축적하는 등 규모있는 생활을 하는 (365) 것도 가계 연속성을 증거한다. 따라서 전토와 개간지, 심지어 제위토까지 저당 잡히는 경제적 파탄이 가족 연속성을 해체하는 결정적 요인일 수 없다. 더구나 박진사는 토지를 가족의 통일성이나 연속성을 상징하는 신성한 것으로 여긴다든지, 토지를 절대가치로 여겨 헌신⁴⁷⁾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 수길과 달리 우길은 성장하면서 점차 아버지와 정신적 거리를 두게 된다. 의전도 부친의 강요로 입학한 그는 서울에 유학온 이후 아버지와 대립한다. 부친을 대사회관계에 있어 역할 모델⁴⁸⁾로 승인하지 않으면서 우길은 <아버지의 잘못을 세라면 십자가 이상으로 날날이 셀>(408)수 있고, <천만 사람이 다 아버지를 옳다고 하더라도 저만은 옳다고 할 수> 없다(411)는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의 전비를 추궁할 때, 그는 아버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임으로써 부자간의 계보적 고리를 위협하게 된다. 자식의 아버탄핵은 일종의 상징적 친부살해, 심리학적으로 말해 전제적인 초자아의 제거에 속한다. 그런데 이 경우 父祖의 권위 상실 뿐만 아니라 후손 역시 자신의 법적 사회적 지위의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⁴⁹⁾. 따라서 친부살해는 상징적인 자살과 같아서 아버부정이 자멸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길의 도전이 아버지의 세대를 포함한 넓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 됨으로써 자멸성을 넘어선다.

그는 거듭 거듭 제 마음에 다짐을 두었다. 그는 쌓이고 쌓인 무엇이 가

47) 이럴 경우, 토지소유는 초개인적인 것이며 그것의 매각은 조상이나 자식에게 죄악이 된다. 또 박급제가 <본시 호걸이라 행민한 돈으로 전토를 장만하고 돈 낮가리를 가리려든 위인은 아니었다>(24)는 진술로 볼 때, 아들 가계는 토지와와의 유착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토지를 상대적인 가치로 파악하여 그 산물이나 부동산 소유의 안정성을 추구한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G. 짐멜, 같은 책, pp.308-309 참조.

48) 수단적 역할 상의 우위에 있는 아버지는 경제수입으로 가족을 봉양하고, 사회에 대한 대외적 관계의 남성역할 모델이다. 이효재, 가족과 사회(경문사, 1983, 개정초판), pp.314-315 참조.

49) 엄숙한 계보적 명령은 가계의 다양한 후손들을 선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아버지가 지닌 권위의 정당성 및 자식의 법적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한다. P. D. Tobin, 같은 책, pp.4-9 참조.

숨에서 연성 폭발하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에게 대한 것만도 아닌듯 하였다. 이 때와 이 땅에 대해서 그는 어지러운 역청(漑靑)과 같은 거른 그림자를 지칠히 깔고 이 땅의 질른 세대(世代)를 짓밟고 나가라는 낡은 역사의 마지막 장을 제 손으로 쥐어 찢고 싶었다.(407)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 궁극으로 <낡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징적인 아비살해는 후손의 자아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계보상의 상징적 변화⁵⁰⁾ 혹은 생물학적 이비를 대체한 새로운 부(초자아, 이데올로기, 권위)의 추구라 할 만하다. 따라서 아비살해는 가족에서 제2의 가족으로, 이전의 권위구조에서 새로운 권위로 충성을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길의 상징적 아비살해는 봉건적 가부장제의 억압적인 질서로부터의 심적 해방이라는 심리적 의의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파탄을 보상할 정치적 몸짓이 될 수 있다.

2) 권위와 정신적 연속성

『봄』에서 유선달의 가족도 남성 부자를 중심으로 하면서 유선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관직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서울에 머물기도 한 유선달은 가족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이지 않는다. <봉제사>를 양반 생활의 목적이라 하면서도 조상봉사의 전통이 유선달에게서 발견되지 않고 또 아들 석림에게도 강조된 바가 없다⁵¹⁾.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가족 연속성에 관한 의식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가족구성원 특히 아들 석림과 맺는 관계의 두드러진 속성은 권위로 보인다. 그는 어린 아들 석림에게 아비로서의 엄숙한 권위를 행사한다. 아들에게 그는 배운 것을 강하고 상놈 아이들과 놀지 못하도록 훈계하며, 글방아 이와 학도의 다른 점을 교육시킨다. 작품 전개상의 주요 시간이 석림의 나이

50) K. Burke, The Philosophy of Literary Form(Univ.of California Press,1973), pp.41-42, 208-210 참조.

51) 유교적 상례의 성복에 아내가 죽었을 경우 복제로는 재취, 기간은 장기 1년, 종류로는 의복을 한다. 장철수, 한국 전통 사회의 관혼상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p.74. 처의 상복 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색에 탐닉한 점은 오히려 그가 전통적인 유가의 절제된 합리주의의 훈육을 받지 않았거나 체통을 내던진 경박함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12세에서 14세까지임을 감안할 때, 석림은 아직 성숙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그는 어머니의 사후 더욱 내성적인 소년이 되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고 인생의 공허와 허무(9-10)를 느낀다. 생사 문제나 인생의 공허에 대한 자각이 삶에 관한 성숙한 인식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석림이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은 공허나 애수는 오히려 그의 미숙의 표지가 되며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강한 집착과 그리움을 낳게 한다. 그래서 석림은 부친보다 모친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144, 249, 416).

그러나 그가 계속 자연적 존재로 남아 있지는 않는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어머니에게서 분리되고 혼인을 함으로써 성인의 세계로 이행한다. 그래서 그는 성인세계의 문화적 존재가 되고 정신적 가치로 인도된다. 그 가치로 인도하는 인물이 부친 유선달이다⁵²⁾. 석림은 부친이 낮설고 무서우면서 동시에 든든하고 위엄이 있어 남자다운 호협한 기상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래서 장인이 금점하는 부친을 은근히 비웃을 때, 석림은 <호협한 남자>인 아버지에 비해 장인을 완고한 골새님, 웅졸하고 인색한 꿈생원(521)으로 여긴다. 이렇게 볼 때, 유선달은 석림에게 <훌륭한 전례>(414)로서 모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유선달은 석림의 삶과 그 방향에 질서를 부여하는 권위로 여겨진다.

아들에 대해 압도적인 권위를 지닌 유선달은 대사회관계에 있어 남성 역할의 모델이 된다. 즉 그는 석림에게 대타관계를 규정해 주는 정신적 지도자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신의 지향은 무엇인가? 석림도 유선달처럼 전통적 권위와 합리적 권위에 이중적으로 의존할 것인가?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봄』에서 찾기 어렵다. 석림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다만 승첨자에게 사형을 가할 때 <부친은 무슨 권한으로 남을 잡아다가 불기를 따리는가> 하는 의문(36)으로 볼 때, 전통적인 권위로부터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석림은 아버지의 권위가 지도하는 것에서 문명 개화의 가치를 따를 것이다. 그

52) 따라서 일종의 입사를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입사전 어린이의 세계는 곧 어머니 여성의 세계이다. 그는 무책임하고 무지하고 행복하며 反성적인 상태에 있다. M. Eliade, Rites and Symbols of Initiation(Harper & Row, 1975), pp.2-4, 8-9 참조.